진도 '농업인의 날' 2명 대통령 표창 수상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 박기태 · 황금농장김치 박춘식

(왼쪽)박춘식, 박기태. /진도군 제공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진도군 농업인 2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주최하고 전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남 각지의 농업인과 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남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의 우수사례 영상 시청과 유공자 표창, 농정업무 평가 우수 시군 시상, 공연 등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전남이 이끈다'는 주제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진도군 의신면의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박기태 대외협력부회장과 진도군 고군면의 황금농장김치 박춘식 대표가 각각 농업인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귀한 상을 수상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에 맞서 진도군의 농업발전과 농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가소득향상과 더불어 영농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포토뉴스

충장동, 돌잔치 가정 축하 · 선물 전달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는 첫돌을 맞은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귀한 아이들의 첫돌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충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해 돌 한복(10만 원 상당), 꽃다발, 축하 떡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시 우리음식연구회 '사랑의 반찬 나눔' 광양시 우리음식연구회는 회원 16명과 함께 손수 반찬을 만들어 읍면동 독거 어르신 100명을 위한 반찬 나눔 재능기부로 지역사회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K-water 주암댐노인복지관, 사랑샘터 이동세탁 서비스 사회복지법인 K-water 나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주암댐노인복지관은 3일간 사랑샘터 이동세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주시교육청, 2023 청소년독립페스티벌 개최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 · 청소년 주도 사회참여형 축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2일 5 · 18 민주광장에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2023 청소년독립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청소년들의 자치와 자립, 역사의식, 민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광주 청소년의 사회참여 축제로 지난 2011부터 시작돼 올해 13회를 맞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청소년추진단을 구성해 청소년 주도로 축제를 기획, 준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마을 아리랑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부스로 구성된 '이슈놀이터' ▲실감나게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알 수 있는 '테마전시' ▲광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독페테리아'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는 '버스킹'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청소년 민주성회' 등 청소년은 물론 광주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채워졌다.

고등의회 부스를 운영한 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 김성민 부의장은 "94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차별과 불의에 저항했던 학생선배들의 정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며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학생참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국 학생항일운동의 계기가 된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교육청, 체육 계열 공동교육과정 '아트페 스쿨' 개강

체육계열 진로 희망 학생 실기 집중 합숙형 공동교육과정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체육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 을 대상으로 '전남도 아트페 스쿨(Art-P · E School)'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도내 29개 일반고 1 · 2학년 학생 51명이 참가한 이번 아트페 스쿨은 11월 10일~12일, 11월 25일~27일 두 차례(총 34시간)에 걸쳐 전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와 전남체육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첫날인 10일에는 참여학생과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이 열렸다.

스포츠 개론, 스포츠 전공 실기 등 전문 교과 2개 강좌가 개설됐으며,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실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30여 명의 체육교사와 전문강사가 팀티칭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아트페 스쿨(Art-P · E School)은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예술 · 체육 전문교과를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개설 · 운영하는 실기 집중 합숙형 공동교육과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남예술고등학교와 연계해 예술 계열 전문 교과 수업을 운영했고, 이번에 전남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해 체육 계열 전문 교과수업을 개설한 것이다.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잠재력과 역량를 키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전남사랑 서포터즈 리더 20명 공모…오는 22일까지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와 정보공유, 지원 활동을 펼칠 서포터즈 리더 2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1년 만에 가입자가 43만 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발된 리더는 4개월 간 서포터즈와 관련된 행사와 콘텐츠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하고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에 가입한 사람 중 전남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 리더는 오는 12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주년을 기념하는 응원대회에서 위촉하고, 전남도 주관 축제 · 행사 우선 초청 특전과 활동비 일부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서포터즈 리더는 SNS를 통해 팔로워 등에게 도정 정보를 가장 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리더로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많은 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e.co.kr

'서주성 주무관' 11월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은 13일 철저한 정보분석으로 누락 세액 76억원을 추징한 서주성 주무관을 '11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 주무관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외국에서 임가공 한 뒤 재수입 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주는 '해외임가공 감면 제도'를 악용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관세 76억원을 감면받았다.

서 주무관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추징 절차를 밟아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매달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 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한국에너지공대, 고등학생 진로 멘토링

더 나은 미래 위한 계획 수립 중점 프로그램 기획

한국에너지공대(KENTECH)는 지난 11일 대학 테슬라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RC교육센터 고등학생 대상 이공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한 RC교육센터장 김은정 교수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대 학부생들은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 사전에 RC교육을 통해 진로 멘토링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정 이해, 고등학생들의 발달 특징 등을 배우고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한국에너지공대 1동 및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견학하며 학생들에게 교육과 실습 및 연구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멘토들은 경험을 나누며, 실제 교육과 연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 호 기자

진월면,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 개선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 광양시청 작은봉사회 참여

광양시 진월면은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청 작은봉사회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난 11일 펼쳤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개선 대상은 진월면 진정리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로, 암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1년간 쌓아 놓은 쓰레기양이 1톤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됐다.

진월면 맞춤형복지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주거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대상자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했다.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광양시청 작은봉사회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폐기물 차량 1대를 동원해 적재된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정돈을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앞으로도 진월면 맞춤형복지팀은 대상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연로한 대상자들이 식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순용 진월면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조곡동청년회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 수상

우범지역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기여

순천시 조곡동 청년회가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각계의 자원이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 참여하는 움직임이 점증하는 가운데, 민간의 치안 활동 참여를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 의지를 견인하기 위해 매년 수상한다.

조곡동 청년회는 2020년 2월 설립 후, 지금까지 25명 청년회원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봉사를 통해 조곡동민의 안전한 생활권 조성 및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관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우범지역 방범 활동,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환경개선, 방역활동, 우범지역 CCTV 설치, 마을 담장 벽화 그리기, 골목길 태양광 전등, 벤치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아 지난 10일 수상했다. /순천=조순익 기자